

## 월전 장우성의 그림과 동일 화제의 반복적 사용을 통한 미적 기능의 실험\*

최경환\*\*

— <차 례> —

1. 서언
2. 화제의 미적 기능의 실험과 동일 화제의 상이한 사용 방식
  - 1) 문자들의 배열 형태만 달리하는 방식
  - 2) 문자들의 배열 형태와 배열 위치를 모두 달리하는 방식
3. 결론

### <국문초록>

이 글은 월전이 화제의 미적 기능을 다각적으로 실험하기 위해 동일 화제들을 그림에 따라 어떻게 달리 사용하였는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18종의 동일 화제가 각각 적혀진 2폭 또는 3폭의 그림들의 비교를 통해 월전이 두 번째 그림 또는 세 번째 그림에 동일 화제를 적어 넣을 때 첫 번째 그림에서와는 다르게 사용하였던 방식들을 추출하여 그것들을 유형화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동일 화제의 배열 형태만 달리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유형은 동일 화제의 배열 형태뿐만 아니라 배열 위치도 달리하는 방식이다. 첫 번째 방식을 사용한 경우에는 일군의 문자 형상으로서 화제가 하는 기능이 그림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이에 비해 두 번째 방식을 사용한 경우에는 일군의 문자 형상으로서 화제가 하는 기능이 그림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또 달라지지 않기도 한다. 그러므로 두 번째 유형은 화제의 기능이 달라지느냐의 여부에 따라 다시 세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각 유형에 따라 동일 화제가 사용된 그림들을 비교 분석하여 동일 화제를 이루는 문자들의 배열 형태와 배열 위치 그리고 기능이 그림에 따라 어떻게 달

\* 이 논문은 2014년도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교수

라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주제어** 월전 장우성, 화제, 미적 기능, 문자 형상

## 1. 서언

월전 장우성(1912~2005)은 1955년도 작인 <연꽃>에서부터 시작하여 2003년도 작인 <학> 등에 이르기까지 한시나 한문을 이용하여 자신의 그림에 화제를 써 넣는 작업을 근 50년 동안 계속하였다. 한시나 한문으로 된 화제가 적혀진 월전의 그림들이 모두 200폭이 넘는데, 그 중에는 동일 화제가 적혀진 그림들도 적지 않다. 월전은 화면상의 형상이 전체적으로 비슷하거나 제목이 동일한 2폭 또는 3폭의 그림들에 동일 화제를 적어 넣었기 때문이다. 이천시립월전미술관에서 제공해준 자료를 조사해 보니, 동일 화제가 적혀진 그림들은 모두 40폭이고 그 그림들에 사용된 화제들의 종류는 모두 18가지이다. 18종의 화제들을 양식별로 살펴보면, 한시가 8수이고, 한시 시구가 6개이며, 한문 글귀가 4편이다.<sup>1)</sup>

월전은 모두 22회에 걸쳐 자신의 그림들에 동일 화제를 적어 넣었다. 동일 화제가 적혀진 2폭 또는 3폭의 그림이 그려진 시기의 간격은 일정하지 않다. 가장 짧게는 <석국(1959, 곡우)>과 <국화(1959, 소서)>의 경우에서처럼 2개월 반 정도이고, 가장 길게는 <산(1973)>과 <산(1994)>의 경우에서처럼 21년이나 된다. <춤추는 유인원(1988, 봄)>과 <춤추는 유인원(1988, 가을)>의 경우에는 반년이고, <창포화(1980, 봄)>와 <창포화

1) 최경환, 『월전 장우성의 그림과 화제의 미적 기능(1) - 화면의 주요 형상을 부각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동양한문학연구』 제38집, 동양한문학회, 2014. 2, 248쪽과 250쪽 참조.

(1981, 겨울)>의 경우에는 1년 9개월이며, <아매(1975)>와 <아매(1979)>의 경우에는 4년이며, <백자(1969)>와 <백자(1979)>의 경우에는 10년이다. <새안(1983)>과 <가을밤(1994)> 그리고 <가을밤 기러기 소리(1999)>의 경우에는 간격이 각각 11년과 5년이다. 동일 화제를 적어 넣은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그림들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그림이 <국화(1959)>이고, 가장 늦은 시기의 그림이 <가을밤 기러기 소리(1999)>이다.

월전이 40년 동안 22회에 걸쳐 18종의 동일 화제들을 자신의 그림들에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곧 월전이 그러한 작업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해왔음을 말해준다. 월전은 과연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그러한 작업을 하였을까? 월전의 의도는 바로 화제의 기능을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다.

월전은 화제를 통해 해당 그림에 대한 각종 정보들을 제시하였는데,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정보들을 통해 그림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화제는 일종의 문자 메시지로서 그림에 대해 정보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월전은 화제를 화면을 구성하는 한 요소로서 활용하였다. 일군의 문자들로 이루어진 화제의 외적 형태와 위치가 화면 형성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화제는 또한 일군의 문자 형상으로서 그림에 대해 미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sup>2)</sup>

2폭 이상의 그림들에 동일 화제가 적혀졌다는 것은 곧 각각의 그림에 대한 정보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동일 화제일지라도 화제를 이루고 있는 문자들의 배열 형태나 배열 위치는 그림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월전이 문자들의 배열 형태나 배열 위치를 그림에 따라 달리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동일 화제일지라도 화면 형성에 기여하는 양

2) 최경환, 「월전 장우성의 그림과 제화시의 기능」, 『한국고전연구』 제26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2. 12, 426~427쪽 참조.

상은 그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월전이 동일 화제를 써 넣는 작업을 40년 동안이나 하였다는 것은 곧 월전이 화제의 미적 기능을 오랜 세월에 걸쳐 다각적으로 실험하였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월전이 화제의 미적 기능을 오랜 세월에 걸쳐 다각적으로 실험하였다는 것은 곧 월전이 화제의 미적 기능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졌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월전은 여러 편의 글에서 화제의 미적 기능에 관한 관심을 직접적으로 표명한 바도 있다. 월전은 <화제변>이라는 글에서 한글전용시대에 굳이 한시나 한문을 이용하여 자신의 그림에 화제를 적었던 이유가 바로 화제의 미적 기능에 있다고 하였다.<sup>3)</sup> 또 1976년 전시회에 대한 소회를 적은 <여적>이라는 글에서는 “동양화의 특징이자 중대 요소라 할 수 있는 화와 시의 관계에 대하여 이번 전시작의 경우 나름대로 종전보다 한층 배열에 신경을 썼는데.....(후략)”<sup>4)</sup>라고 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제의 미적 기능에 대한 월전의 지대한 관심과 다각적인 실험은 선행 연구자들의 주목을 그리 받지 못하였다. ‘시·서·화’의 관계 측면에서 월전의 그림을 단편적으로 언급한 글들은 다소 있었지만<sup>5)</sup>, 월전의 그림에서 시·서·화가 어떠한 관계 양상을 보이는지 또 화

3) 최경환(2012), 위의 논문, 433~434쪽 참조.

4) 장우성, 『화실수상』, 예서원, 1999, 97쪽.

5) 다음의 글들은 비록 단편적이긴 하지만, 월전의 그림을 ‘시·서·화’의 관계 측면에서 언급하고 있다.

김원룡, 『월전과 그 예술』, 『월전 장우성』, 지식산업사, 1981(이열모의 공저, 『월전을 그리다』, 미술문화, 2012, 재수록).

오광수, 『문인화의 격조와 현대적 변주』, 『한국근대회화선집』 한국화 11권, 금성출판사, 1990(이열모의 공저(2012), 위의 책, 재수록).

이열모, 『월전 예술의 정신세계』, 『한벽문총』 10호, 월전미술문화재단, 2001(이열모의 공저(2012), 위의 책, 재수록).

신향섭, 『월전 장우성의 작품 세계』, 『한벽문총』 10호, 월전미술문화재단, 2001(이열

제가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가 없었기 때문이다. 월전의 그림에서 한시나 한문으로 된 화제가 하는 기능에 관한 논의는 최근에 이르러 필자에 의해 비로소 비롯되었을 뿐이다.

이 글에서는 월전이 화제의 미적 기능을 다각적으로 실험하기 위해 동일 화제를 그림에 따라 어떻게 달리 사용하였는가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먼저 18종의 동일 화제가 각각 적혀진 2폭 또는 3폭의 그림들을 비교하여 월전이 두 번째 그림 또는 세 번째 그림에 동일 화제를 적어 넣을 때 첫 번째 그림에서와는 다르게 사용하였던 방식들을 추출하여 그것을 유형화하기로 한다. 그런 다음 각 유형에 따라 동일 화제가 사용된 그림들을 비교 분석하여 동일 화제를 이루는 문자들의 배열 형태와 배열 위치가 그림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시도는 월전이 자신의 그림들에 화제를 써 넣는 작업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해 왔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월전의 그림들에서 시·서·화가 어떠한 관계 양상을 보이는지를 밝힐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모외 공저(2012), 위의 책, 재수록.

김상철, 『전통의 뜰에 서서 현대의 문을 열다 - 부견부와 장우성의 삶과 예술』, 『당대 수묵대가: 장우성·푸취안푸』, 이천시립월전미술관, 2010.

박영택, 『장우성 - 자기 내면의 투사로서의 서화』, 『당대수묵대가: 장우성·푸취안푸』, 이천시립월전미술관, 2010.

정현숙, 『절제와 일취의 월전 서풍』, 김수천의 공저, 『월전 장우성 시서화 연구』, 열화당, 2012.

## 2. 화제의 미적 기능의 실험과 동일 화제의 상이한 사용 방식

18종의 동일 화제가 각각 적혀진 2폭 또는 3폭의 그림들을 비교해본 결과, 월전이 두 번째 그림 또는 세 번째 그림에 동일 화제를 적어 넣을 때 첫 번째 그림에서와는 다르게 하였던 방식들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유형으로 추출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동일 화제를 이루고 있는 문자들의 배열 형태만 다르게 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유형은 문자들의 배열 형태뿐만 아니라 배열 위치도 다르게 하는 방식이다.

동일 화제를 이루고 있는 문자들의 배열 형태만 다르게 하였을 경우에는 일군의 문자 형상으로서 화제가 하는 기능이 그림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이에 비해 동일 화제를 이루고 있는 문자들의 배열 형태와 배열 위치를 모두 달리하였을 경우에는 일군의 문자 형상으로서 화제가 하는 기능이 그림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또 달라지지 않기도 한다. 그러므로 두 번째 유형은 화제의 기능이 달라지느냐의 여부에 따라 다시 세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1) 문자들의 배열 형태만 달리하는 방식

동일 화제를 이루고 있는 문자들의 배열 형태는 다르지만 배열 위치가 비슷한 그림은 모두 7종이 있다. <서록도병풍(1967)>과 <서록도(1973)>, <백자(1969)>와 <백자(1979)>, <산(1973)>과 <산(1994)>, <수선(1979)>과 <수선(1990)> 그리고 <수선(연도 미상)>, <창포화(1980)>와 <창포화(1981)>, <산과 달(1994)>과 <산(1995)>, <명추(1998)>와 <명추(연도 미상)> 등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서는 <백자(1969)>와 <백자(1979)>, <창포화(1980)>와 <창포화(1981)> 2종의 그림들을 각각 비교

해 보기로 한다. 그리하여 동일 화제를 이루는 문자들의 배열 형태가 그림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며, 또 일군의 문자 형상으로서 화제가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와 아울러 일종의 문자 메시지로서 화제가 두 폭의 그림 모두에 대해 정보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의 <그림 1>은 <백자(1969)><sup>6)</sup>이고, <그림 2>는 <백자(1979)>이다. 글 (1)과 (2)는 각각 <그림 1>과 <그림 2>의 화면상에 적혀진 것이다.



<그림 1> 백자 87×81cm, 1969



<그림 2> 백자 85×70cm, 1979

(1)

如雲中月	구름 사이의 달과 같고
如受露荷花	이슬 맞은 연꽃과 같고
如美人素裝	소복단장한 여인과 같다

6) 이 논문에 사용된 그림 작품들의 디지털 이미지는 이천시립월전미술관에서 제공한 것임

己酉春月田老夫寫[기유(1969)년 봄에 월전노인이 그리다]

(2)

如雲中月      구름 사이의 달과 같고

如受露荷花      이슬 맞은 연꽃과 같고

如美人素裝      소복단장한 여인과 같다

己未冬月田作[기미(1979)년 겨울에 월전이 그리다]

<그림 1>과 <그림 2>의 제목은 똑같이 백자이지만, 화면상에 그려진 백자의 형상은 차이가 난다. <그림 1>에서는 매병(梅瓶)이 그려져 있다. 입은 작은 원판 모양으로 되어 있고 목이 짧다. 어깨가 널찍하고 둥글며, 어깨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부터 몸체의 폭이 점차 좁아지다가 바닥 부근에서는 수직으로 이어지는 형태로 되어 있다. <그림 2>에서는 편병(扁瓶)이 그려져 있다. 입과 굽은 작고 몸체는 납작하면서 양쪽 옆이 불룩하게 볼거져 나와 있고, 양쪽 옆에서 굽으로 내려가면서 폭이 급격히 좁아지는 형태로 되어 있다.<sup>7)</sup>

<그림 1>과 <그림 2> 모두 화면 오른쪽 하단에 각각 글 (1)과 (2)가 적혀져 있다. 글 (1)과 글(2)는 모두 화제로 제시된 산문 글귀와 아울러 그림이 그려진 시기와 화가의 호를 적은 글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이 그려진 시기와 화가의 호를 적은 글이 글 (1)에서는 ‘己酉春 月田老夫寫’로, 글 (2)에서는 ‘己未冬 月田作’으로 서로 다르다. 그러나 화제로 제시된 산문 글귀는 동일하다.

글 (1)과 (2)가 적혀진 화면상의 위치는 비슷하지만, 문자들이 배열된 형태는 상이하다. 글 (1)은 화면상에서 5줄의 문자열로 배열되어 있는데,

7)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문화재대관 - 국보 도자기 및 기타』, 2011, 130쪽과 362쪽 참조

세로로 펼쳐져 있다. 5줄의 문자열이 각각 5자, 또는 4자, 또는 3자로 이루어져 있어 가지런하지 않고 들쭉날쭉한 형태로 되어 있다. 앞의 3줄은 화제로 제시된 산문 글귀이고, 뒤의 2줄은 그림이 그려진 시기와 호를 적은 글이다. 앞의 3줄의 문자들의 크기가 뒤의 2줄의 문자들보다 더 크다.

글 (2)는 화면상에서 10줄의 문자열로 배열되어 있는데, 가로로 펼쳐져 있다. 10줄의 문자열이 각각 2자, 또는 1자, 또는 3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10줄의 문자열은 전체적으로 비교적 가지런한 2개의 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다. 앞의 8줄은 화제로 제시된 산문 글귀이고, 뒤의 2줄은 그림이 그려진 시기와 호를 적은 글이다. 앞의 8줄의 문자들의 크기가 뒤의 2줄의 문자들보다 훨씬 더 크다.

<그림 1>과 <그림 2>의 화면 오른쪽 하단에 각각 적혀진 글 (1)과 글 (2)는 똑같이 화면의 각을 막는 기능을 한다. 중국화나 한국화의 화면은 4각이 모두 막히거나 모두 막히지 않는 것을 금기로 한다. 화면의 4각이 모두 막히면 한 귀퉁이도 숨이 통하는 곳이 없어서 답답한 느낌이 드는 반면, 4각이 전혀 막히지 않으면 화면이 들떠있는 것처럼 안정되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림을 그리는 것 이외에 제발(題跋)을 쓰거나 도장을 찍는 방법을 사용하여 1각이나 2각을 막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3각을 막기도 한다.<sup>8)</sup> <그림 1>에서는 글 (1)이 화면 왼쪽 상단에 찍혀진 작은 도장과 함께 각을 막고 있다. <그림 2>에서는 글 (2)가 화면 왼쪽 하단에 찍혀진 큰 도장과 함께 각을 막고 있다.

동일 화제로 제시된 산문 글귀가 <그림 1>에서는 세로로 펼쳐진 3줄의 문자열로 배열되었고, <그림 2>에서는 가로로 펼쳐진 8줄의 문자열로 배열되었다. 이는 각각의 그림에 그려진 백자의 형상과 조화를 이루어 화면 전체에 통일감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에 그려진 매병

8) 왕백민 지음, 강관식 옮김, 『동양화구도론』, 미진사, 1991, 107쪽 참조.

은 몸체가 좌우의 폭보다는 상하의 길이가 더 길다. 즉 가로 면보다 세로 면이 더 길다. 그러한 매병의 몸체와 조화를 이루게 하기 위해 월전은 문자열을 세로로 펼쳤던 것이다. 이에 비해 <그림 2>에 그려진 편병은 몸체가 상하의 길이보다 좌우의 폭이 더 길다. 즉 가로 면이 세로 면보다 더 길다. 그러한 편병의 몸체와 조화를 이루게 하기 위해 월전은 문자열을 가로로 펼쳤던 것이다.

<그림 1>의 5줄의 문자열은 들쭉날쭉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비해, <그림 2>의 10줄의 문자열은 비교적 가지런한 형태로 되어 있다. 이는 각각의 그림에 그려진 백자의 형상과 대비를 이루게 하여 화면에 변화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에 그려진 매병은 몸체 아래쪽이 반듯한 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다. 이에 비해 5줄의 문자열은 들쭉날쭉한 형태로 되어 있다. 두 개의 형태가 서로 대조적이어서 화면에 변화를 준다. <그림 2>에 그려진 편병은 몸체가 납작하고 좌우가 양쪽 옆이 볼거진 형태로 되어 있다. 이에 비해 10줄의 문자열은 비교적 가지런한 2개의 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다. 이 두 개의 형태도 또한 서로 대조적이기 때문에 화면에 변화를 준다.

화제로 제시된 산문 글귀는 원래 월전이 <그림 1>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은 것이다. 월전은 <그림 1>에 그려진 매병의 모습을 ‘구름 사이의 달(雲中月)’과 ‘이슬 맞은 연꽃(受露荷花)’ 그리고 ‘소복단장한 여인(美人素裝)’으로 비유하고 있다. 환하고 둥근 모습은 마치 구름 사이로 환하게 모습을 드러낸 달덩이와 같고, 단아한 모습은 마치 이슬을 맞아 더욱 고결해 보이는 하얀 연꽃과 같으며<sup>9)</sup>, 둥글어서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어깨와 하얗고 미끈하게 빠진 몸체는 마치 소복을 입은 미인의 모습과도 같다는 것이다.<sup>10)</sup> <그림 1>에 그려진 매병의 모습에 대한 이와 같

9) 강경숙, 『한국도자사』, 예경, 2012, 392쪽 참조.

은 진술은 <그림 2>에 그려진 편병의 모습에도 유효하다. 이러한 점에서 화제로 제시된 산문 글귀는 일종의 문자 메시지로써 두 폭의 그림 모두에 대해 정보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그림 3>은 <창포화(1980)>이고, <그림 4>는 <창포화(1981)>이다. 글 (3)과 (4)는 각각 <그림 3>과 <그림 4>의 화면상에 적혀진 것이다.



<그림 3> 창포화  
40.5×31.5cm, 1980



<그림 4> 창포화  
41×31.5cm, 1981

(3)

南窓一枕夢未覺      남쪽 창가 베갯머리 꿈에서 깨지도 않았는데  
煦煦春風入畫圖      따뜻한 봄바람이 그림 속으로 들어온다  
庚申春初盤龍山人月田[경신(1980)년 이른 봄 반룡산인 월전]

10) 방병선, 『사람을 닮은 그릇, 도자기』, 보림출판사, 2006, 46쪽 참조

(4)

南窓一枕夢未覺      남쪽 창가 베갯머리 꿈에서 깨지도 않았는데  
 煦煦春風入畫圖      따뜻한 봄바람이 그림 속으로 들어온다

辛酉冬盤龍山人月田作[신유(1981)년 겨울 반룡산인 월전이 그리다]

<그림 3>과 <그림 4>의 제목은 똑같이 창포화이지만, 화면상에 그려진 파란 꽃이 핀 창포화의 형상은 조금 차이가 난다. 두 그림 모두 창포 잎들이 사선 모양으로 뻗어 있지만, 그 잎들이 놓여 있는 위치와 길이 그리고 모여 있는 모양이 차이를 보인다. <그림 3>에서는 화면 하단 중앙에서부터 오른쪽 끝에까지 약간의 간격을 둔 채 산재되어 있는 여러 잎의 창포 잎들이 화면 왼쪽 상단 쪽을 향해 짧게 뻗어 있다. 이에 비해 <그림 4>에서는 화면 하단 오른쪽 끝에 촘촘한 상태로 모여 있는 여러 잎의 창포 잎들이 화면 왼쪽 상단 쪽을 향해 길게 뻗어 있다.

<그림 3>과 <그림 4> 모두 화면 왼쪽 변을 따라 각각 글 (3)과 (4)가 적혀져 있다. 글 (3)과 글(4)는 모두 화제로 제시된 시구와 아울러 그림이 그려진 시기와 화가의 호를 적은 글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이 그려진 시기와 화가의 호를 적은 글이 글 (3)에서는 ‘庚申春初 盤龍山人月田’으로, 글 (4)에서는 ‘辛酉冬 盤龍山人月田’으로 서로 다르다. 그러나 화제로 제시된 시구는 동일하다.<sup>11)</sup>

글 (3)과 (4)가 적혀진 화면상의 위치는 비슷하지만, 문자들이 배열된 형태는 상이하다. 글 (3)은 화면상에서 3줄의 문자열로 배열되어 있다. 앞의 2줄은 화제로 제시된 시구와 함께 그림이 그려진 시기를 적은 문자들로 되어 있다. 그림이 그려진 시기를 적은 문자들은 시구에 해당되는 문

11) 다만 글자가 1개 차이 난다. 글 (3)에서는 ‘窓’으로 되어 있고, 글 (4)에서는 ‘窓’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두 글자는 같은 글자로 쓰인다.

자들보다 크기가 작다. 뒤의 한 줄은 호를 적은 문자들로 되어 있는데, 앞의 두 줄보다 길이가 짧다. 또 문자들의 크기는 시구에 해당되는 문자들보다 작고, 그림이 그려진 시기를 적은 문자들보다 크다. 이와 같이 문자의 크기를 달리한 것은 화면에 변화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글 (4)는 화면상에서 2줄의 문자열로 배열되어 있다. 앞줄은 시구를 적은 것이고, 뒷줄은 그림을 그린 시기와 호를 적은 것이다. 앞줄의 문자들이 뒷줄의 문자들보다 크기가 더 크다. 이 또한 화면에 변화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과 <그림 4>의 화면 왼쪽 변을 따라 각각 적혀진 글 (3)과 글 (4)는 똑같은 기능을 한다. 두 그림에서 창포 잎들이 사선 모양으로 뻗어 있기 때문에 한 편으로 동적인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불안정감을 준다. 그런데 글 (3)과 (4)가 각각 화면 왼쪽 변을 따라 각각 3줄과 2줄로 길게 적혀져 있기 때문에 왼쪽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기울어 있는 창포 잎들을 떠받쳐 주는 듯한 느낌을 준다. 그리하여 화면이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어 안정되어 보인다. 즉 일군의 문자 형상으로서 글 (3)과 (4)는 모두 한쪽 방향으로 기울어 있는 창포 잎들을 떠받쳐줌으로써 화면이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게 하여 시각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기능을 한다.<sup>12)</sup>

동일 화제로 제시된 시구가 <그림 3>에서는 그림이 그려진 시기를 적은 문자들과 함께 2줄로 배열되었는데 비해, <그림 4>에서는 1줄의 문자열로 배열되었다. 또 <그림 3>의 3개의 문자열로 된 형상과 <그림 4>의 2개의 문자열로 된 형상을 비교해보면, <그림 3>의 것이 길이가 훨씬 짧지만 폭은 더 넓고, <그림 4>의 것은 길이가 훨씬 길지만 폭은 더 좁다. 이는 각각의 그림에 그려진 창포 잎들의 형상과 조화를 이루어 화면 전체

12) 김동영외, 『음악미술 개념사진』, 아울북, 2010, 159쪽 참조.

에 통일감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에 그려진 청포 잎들은 사선 모양으로 뺀 길이가 짧지만, 잎들이 간격을 두고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왼쪽에 위치한 잎에서부터 가장 오른쪽에 위치한 잎까지의 폭이 넓다. 청포 잎들의 이러한 형상과 조화를 이루게 하기 위해 월전은 <그림 3>에서 글 (3)을 3줄로 배열하여 문자열의 전체적인 형상을 상대적으로 길이가 짧은 반면 폭을 넓도록 하였던 것이다. 이에 비해 <그림 4>에 그려진 청포 잎들의 형상은 사선 모양으로 뺀 길이가 길지만, 잎들이 촘촘하게 모여 있기 때문에 가장 왼쪽에 위치한 잎에서부터 가장 오른쪽에 위치한 잎까지의 폭이 좁다. 그래서 월전은 청포 잎들의 형상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 <그림 3>에서와는 달리 <그림 4>에서 글 (4)를 2줄로 배열하여 문자열의 전체적인 형상을 상대적으로 길이가 긴 반면 폭이 좁도록 하였던 것이다.

화제로 제시된 시구는 원래 월전이 <그림 3>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은 것이다. 그러나 시구에 언급된 내용만으로는 그 내용이 <그림 3>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 시구에 언급된 것이 봄날 아침의 방 안의 풍경이기 때문이다. 방 안에는 남쪽 창가 쪽으로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어떤 사람과 따뜻한 봄바람을 맞고 있는 그림이 있다. 그런데 <그림 3>이 그려진 시기가 ‘경신(1980)년 이른 봄’이라는 점에서, 시구의 내용이 <그림 3>을 그린 시간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침이 되었는데도 잠에서 아직 깨어나지 않은 사람은 곧 방 안에 있는 그림을 그린 화가(월전)인데, 간밤에 늦게까지 그림을 그리느라고 늦잠을 자고 있다는 것이다.

월전이 화제로 제시된 시구를 통해 <그림 3>을 그린 시기가 봄날 깊은 밤이라는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정보는 겨울에 그려진 <그림 4>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화제로 제시된

시구는 <그림 3>에 대해서는 정보적 기능과 미적 기능을 모두 수행하지만, <그림 4>에 대해서는 미적 기능만 수행하고 정보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 2) 문자들의 배열 형태와 배열 위치를 모두 달리하는 방식

동일 화제를 이루고 있는 문자들의 배열 형태가 다를 뿐 아니라 배열 위치도 다른 그림은 모두 11종이 있다. 이 11종의 그림들은 화제의 기능이 달라지는지의 여부에 따라 다시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문자들의 배열 형태와 배열 위치는 서로 다르지만 화제의 기능은 동일한 그림과 문자들의 배열 형태와 배열 위치뿐만 아니라 화제의 기능도 서로 다른 그림이 바로 그것이다. 전자에 해당되는 그림은 모두 6종이 있는데, <야매(1975)>와 <야매(1979)> 그리고 <야매(1988)>, <등꽃(1978)>과 <등(1981)>, <설매(1980)>와 <홍매(1982)>, <백매(1980)>와 <야매(1996)>, <학(1981)>과 <학(1982)>, <군와쟁쟁도(연도 미상)>와 <올챙이들의 행진(1999)> 등이 바로 그것이다. 후자에 해당되는 그림은 모두 5종이 있는데, <석국(1959, 곡우)>과 <국화(1959, 소서)>, <면벽(1973)>과 <면벽(1981)> 그리고 <면벽(1988)>, <돌(1976)>과 <돌(1986)>, <새안(1983)>과 <가을밤(1994)> 그리고 <가을밤 기러기 소리(1999)>, <춤추는 유인원(1988, 춘)>과 <춤추는 유인원(1988, 추)> 등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서는 전자에 해당되는 그림들 중에서 <야매(1975)>와 <야매(1979)>, <설매(1980)>와 <홍매(1982)> 2종의 그림들과 후자에 해당되는 그림들 중에서 <돌(1976)>과 <돌(1986)>, <춤추는 유인원(1988, 춘)>과 <춤추는 유인원(1988, 추)> 2종의 그림들을 각각 비교하기로 한다. 그리하여 동일 화제를 이루는 문자들의 배열 형태와 배열 위치가 그

림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며, 또 일군의 문자 형상으로서 화제가 어떻게 동일하거나 상이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와 아울러 일종의 문자 메시지로서 화제가 두 폭의 그림 모두에 정보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의 <그림 5>는 <야매(1975)>이고, <그림 6>은 <야매(1979)>이다. 글 (5)와 (6)은 각각 <그림 5>와 <그림 6>의 화면상에 적혀진 것이다.



<그림 5> 야매 42×139cm, 1975



<그림 6> 야매 64.2×127cm, 1979

(5)

只管和烟和月寫    오직 안개와 달빛을 그렸을 뿐  
不知是雪是梅花    눈인지 매화인지 모르겠다  
石舟室主人月田[석주실 주인 월진]

(6)

只管和烟和月寫 오직 안개와 달빛을 그렸을 뿐

不知是雪是梅花 눈인지 매화인지 모르겠다

己未春初石舟室長月田作[기미(1979)년 초봄 석주실 주인 월전이 그리다]

<그림 5>와 <그림 6>은 제목이 똑같이 야매인데, 모두 안개가 끼고 보름달이 떠 있는 밤 하늘을 배경으로 하여 하얀 꽃이 만개한 매화나무 가지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두 폭의 그림 모두 달빛을 받아 더욱 하얗게 빛나는 매화꽃이 두드러져 보이지만, 매화나무 가지가 뻗은 방향과 가지의 형태, 달의 위치, 그리고 글이 적혀진 위치와 외형상의 형태 등은 그림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그림 5>에서는 2개의 굵은 매화나무 가지가 화면 왼쪽 상단 쪽에 비스듬하게 그려져 있다. 굵은 가지에서 뻗어 나온 굵기가 각기 다른 서너 개의 가지들이 화면 중앙 하단 쪽으로 비스듬히 길게 내리뻗었는데, 그 가지들에서 다시 잔가지들이 뻗어 나와 화면 오른쪽으로 솟구쳐 올라가 있다. 잔가지들 곳곳에 작고 하얀 매화꽃이 울망졸망 피어 있다. 오른쪽으로 솟구쳐 올라간 잔가지들 뒤 쪽으로 달이 큼직하게 그려져 있고, 달 위쪽에 큰 도장이 1개 찍혀져 있다. 길게 내리뻗은 나뭇가지 위쪽과 아래쪽에 안개가 열게 깔려 있다.

굵은 매화 나뭇가지 아래쪽에 글 (5)가 6줄로 적혀져 있고, 마지막 줄 아래에는 작은 도장이 2개 찍혀져 있다. 앞의 4줄은 화제로 제시된 산문 글귀를 적은 것이고, 뒤의 2줄은 호를 적은 것이다. 뒤의 2줄에 적혀진 문자들의 크기가 앞의 4줄에 적혀진 것보다 조금 작다. 문자들의 크기가 작고 또 촘촘하게 배열된 형태가 울망졸망하게 피어 있는 작은 매화꽃들과 호응을 이룬다.

월전이 글 (5)를 굵은 매화나무 가지 밑에 작은 문자로 촘촘하게 적어 넣은 것은 화면이 한 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화면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화면 오른쪽에는 위로 솟구쳐 올라간 잔가지들 뒤 쪽으로 달이 오른쪽 변을 거의 다 차지할 만큼 큼직하게 그려져 있다. 만약 굵은 매화나무 가지 밑이 여백의 상태로 비어 있으면, 화면이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된다. 그래서 월전이 화면의 왼쪽과 오른쪽의 균형을 이루게 하기 위해 그곳에 글 (5)를 적어 넣었던 것이다. 그럼으로써 화면 왼쪽의 굵은 가지들은 화면 오른쪽의 작은 매화꽃이 만개한 잔가지들과 대응을 이루고, 화면 왼쪽의 작은 문자들로 이루어진 문자 형상은 화면 오른쪽의 큼직하게 그려진 달과 대응을 이룬다. 즉 화면의 왼쪽과 오른쪽이 비대칭적 균형을 이루고 있다.<sup>13)</sup>

<그림 5>에서와는 달리 <그림 6>에서는 2개의 굵은 매화나무 가지가 화면 오른쪽 변 중앙 아래에서부터 위쪽으로 구불뚝하게 뻗어나갔다가 서로 엉킨 다음 가지 하나는 위쪽으로 뻗어 올라가고 다른 가지 하나는 아래쪽으로 비스듬하게 길게 내리뻗었다. 아래쪽으로 길게 내리뻗은 가지 끝에서 다시 잔가지들이 뻗어 나와 위쪽으로 솟구쳐 있다. 위쪽으로 솟구쳐 있는 잔가지들 뒤쪽으로 달이 떠 있고, 달 아래에 큰 도장이 1개 찍혀져 있다. 잔가지들 곳곳에 꽃들이 만개해 있다. <그림 6>에 그려진 나무 가지가 <그림 5>의 것보다 더 굵을 뿐 아니라 꽃들의 크기도 더 크다. 반면 달은 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달이 <그림 5>에서는 화면 오른쪽 변을 거의 다 차지하도록 그려져 있는데 비해, <그림 6>에서는 화면 왼쪽 변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나뭇가지 위쪽과 아래쪽에 안개가 열게 깔려 있다.

화면 오른쪽 하단에 글 (6)이 8줄로 적혀져 있고, 마지막 줄 뒤에 작은

13) 김동영외(2010), 앞의 책, 159쪽 참조.

도장이 2개 찍혀져 있다. 앞의 5줄은 화제로 제시된 산문 글귀를 적은 것이고, 뒤의 3줄은 그림을 그린 시기와 호를 적은 것이다. 뒤의 3줄에 적혀진 문자들의 크기가 앞의 5줄에 적혀진 것보다 조금 작다. <그림 6>에 적혀진 문자들이 <그림 5>에 적혀진 문자들보다 조금 더 클 뿐 아니라 문자간의 간격도 더 넓다. 이는 <그림 6>에 그려진 매화꽃의 크기가 <그림 5>의 것보다 더 큰 것과 관련이 된다. 문자의 크기가 매화꽃의 크기와 호응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글 (6)을 적어 넣지 않고 오른쪽 하단을 비어 두었다면, 화면 왼쪽 상단에 위치한 달로 인해 화면이 위쪽으로 치우쳐서 화면의 위쪽과 아래 쪽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월전은 오른쪽 하단에 글 (6)을 적어 넣어 화면이 한 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화면이 균형을 이루게 하였다.

글 (5)는 산문 글귀와 아울러 호를 적은 글로 이루어져 있는데 비해, 글 (6)은 산문 글귀와 아울러 그림이 그려진 시기와 호를 적은 글로 되어 있다. 화제로 제시된 산문 글귀는 동일하지만, 산문 글귀의 외적인 형태는 그림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산문 글귀의 외적인 형태가 <그림 5>에서는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서로 비슷한 작은 정사각형에 가깝다면, <그림 6>에서는 세로보다 가로의 길이가 훨씬 더 긴 직사각형에 가깝다. 이와 같이 일군의 문자 형상으로서 동일 화제의 외형이 그림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은 그것이 위치하고 있는 여백 공간의 크기나 모양이 그림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굵은 매화나무 가지가 화면의 왼쪽 변이나 오른쪽 변에서부터 위로 비스듬히 올라갔다가 방향을 바꾸어 화면 하단 쪽을 향해 내리뻗으면서 형성되는 나뭇가지와 화면 하단 사이의 여백 공간의 크기와 모양은 그림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그 공간의 크기는 <그림 5>의 것이 <그림 6>의 것보다 더 작다. 때문에 월전은 <그림 5>에서 화제

의 외형이 작은 정사각형에 가까운 형태를 띠도록 문자들을 배열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그림 6>에서는 그 공간의 가로 폭이 세로 폭보다 더 길기 때문에 화제의 외형도 세로보다 가로의 길이가 훨씬 더 긴 직사각형에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화면이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그림에 따라 서로 다른 크기나 모양으로 된 여백 공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월전이 문자들을 배열하였다고 할 수 있다.

두 그림 모두 화제가 적혀져 있는 위치는 굵은 매화나무 가지 아래 쪽이다. 그러나 굵은 매화나무 가지가 있는 위치는 그림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굵은 매화나무 가지가 <그림 5>에서는 화면 왼쪽 상단에 위치한 반면, <그림 6>에서는 화면 오른쪽 중앙 아래에 위치한다. 이러한 점에서 <그림 5>와 <그림 6>의 동일 화제로 적혀진 산문 글귀는 문자들의 배열 형태와 배열 위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미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화제로 제시된 “只管和烟和月寫, 不知是雪是梅花(오직 안개와 달빛을 그렸을 뿐, 눈인지 매화인지 모르겠다)”라는 산문 글귀는 그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시야를 막는 안개로 인해 달빛을 받아 하얀 빛을 발하는 물체가 눈인지 매화인지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어둠 속에서 달빛을 받아 눈처럼 하얗게 빛나는 매화꽃의 상태를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매화꽃의 상태에 대한 이러한 정보는 두 폭의 그림 모두에 유효하다. 이러한 점에서 화제로 제시된 산문 글귀는 또한 일종의 문자 메시지로서 두 폭의 그림 모두에 대해 정보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그림 7>는 <설매(1980)>이고, <그림 8>은 <홍매(1982)>이다. 글 (7)과 (8)은 각각 <그림 7>과 <그림 8>의 화면상에 적혀진 것이다.



〈그림 7〉 설매 65×127cm, 1980



〈그림 8〉 홍매 61×73.5cm, 1982

(7)

雪滿空山月滿城	눈은 텅 빈 산을 덮고 달빛은 성 안에 가득하여
孤吟獨酌到深更	밤 깊도록 홀로 읊조리며 홀로 술을 마시다가
書窓睡熟殘燈冷	등불이 가물거릴 때 창가에 기대 곤히 잠드는데
一樹梅花歲寒情	한 그루 매화가 추운 겨울의 정취를 품고 있다
盤龍山人月寫	[반룡산인 월전 그리다]

(8)

雪滿空山月滿城	눈은 텅 빈 산을 덮고 달빛은 성 안에 가득하여
---------	----------------------------

孤吟獨酌到深更      밤 깊도록 홀로 읊조리며 홀로 술을 마시다가  
 書窓睡熟殘燈冷      등불이 가물거릴 때 창가에 기대 곤히 잠드는데  
 一樹梅花歲寒情      한 그루 매화가 추운 겨울의 정취를 품고 있다  
 壬戌春盤龍山人月田年七十[임술(1982)년 봄 반룡산인 월전 나이 일흔에]

<그림 7>과 <그림 8>의 관계는 앞에서 비교하였던 그림들의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앞에서 비교하였던 그림들은 제목이 같거나 화면상의 형상이 전체적으로 비슷하다. 그러나 <그림 7>과 <그림 8>은 제목도 다르고 화면상의 형상도 다르다. <그림 7>는 제목이 ‘설매’이고, 눈 속에서 붉은 꽃이 화사하게 핀 한 그루 매화나무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에 비해 <그림 8>은 제목이 ‘홍매’이고, 붉은 꽃이 막 피어나기 시작한 매화나무 가지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두 그림에는 동일한 화제가 적혀져 있다.

<그림 7>에서는 눈 속에서 붉은 꽃이 화사하게 핀 한 그루 매화나무의 모습이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부터 왼쪽 하단에 이르기까지 사선 모양으로 펼쳐져 있다. 매화나무는 비탈진 언덕에 뿌리를 박고 있으면서 굽은 가지가 위로 뻗지 않고 휘어져서 언덕 아래쪽을 향해 뻗어나가다가 다시 두 가닥으로 갈라져 뻗으면서 가지 끝이 눈 속에 묻혀 있다. 가지 끝이 눈 속에 묻혀 있는 걸로 보아 눈이 상당히 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루터기와 가지 끝 부분에서 각각 뻗어 나온 여러 개의 잔가지에 붉은 매화꽃들이 화사하게 피어 있다. 비탈진 언덕은 온통 눈으로 덮여 있고, 나뭇가지 위에도 눈이 쌓여 있을 뿐 아니라 붉은 매화 꽃잎들에도 눈이 붙어 있다. 굽은 나뭇가지가 휘어져 있는 데다 가지 위에 눈이 덮여 있는 모습이 마치 가지가 눈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해 휘어진 것처럼 보인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잔가지 곳곳에 화사하게 피어 있는 붉은 꽃들의 모습은 약조건

속에서도 꽃을 피워내는 매화나무의 강인한 생명력을 말해준다. 내리는 눈으로 인해 하늘이 온통 하얀 빛을 띤 가운데 나뭇가지 주변의 공중은 젓빛을 띠고 있어, 시간적 배경이 밤임을 드러낸다.

화면 왼쪽 변을 따라 글 (7)이 3줄로 적혀져 있는데, 앞의 2줄은 화면 왼쪽 상단에서부터 하단에 이르기까지 길게 적혀져 있고, 마지막 한 줄은 짧게 적혀져 있다. 첫째 줄에서부터 둘째 줄 끝에서 다섯 번째 글자까지가 화제로 제시된 시를 적은 것이고, 둘째 줄 끝의 네 글자와 마지막 한 줄은 호를 적은 것이다. 작은 도장 2개가 마지막 줄 아래에 찍혀져 있고, 큰 도장 1개가 언덕 위의 매화나무 그루터기 아래, 즉 화면 오른쪽 중앙에 찍혀져 있다.

매화나무의 가지가 휘어져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왼쪽 하단으로 비스듬하게 뻗어 있기 때문에 한 편으로 동적인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 불안정감을 준다. 그런데 화면 왼쪽 상단에서부터 하단에 이르기까지 길게 적혀진 2줄의 글은 왼쪽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기울어 있는 나뭇가지를 떠받쳐 주는 듯한 느낌을 준다. 그리하여 화면이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어 안정되어 보인다. 즉 화면 왼쪽 변을 따라 길게 적혀진 2줄의 글은 왼쪽 방향으로 기울어진 나뭇가지를 떠받쳐줌으로써 화면이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게 하여 시각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기능을 한다.

<그림 8>에서는 화면 왼쪽 상단에서부터 오른쪽 하단에 이르기까지 꾸불꾸불 뻗어나간 매화나무 가지에 붉은 꽃들이 막 피어나기 시작한 모습이 그려져 있다. 굵은 나뭇가지가 아래쪽으로 갈수록 점차 가늘어지는데, 가지 끝 부분에서 뻗어 나온 잔가지와 굵은 가지 위쪽으로 뻗어난 잔가지에 각각 봉오리 상태와 봉오리가 약간 벌어진 상태의 작고 붉은 매화꽃들이 매달려 있다. 가지는 굵은 데다 질감이 거칠어 보이는데, 꽃은 작

고 여러 보인다. 그리하여 수령이 오래된 매화나무에서 꽃들이 막 피어나기 시작하는 모습을 그린 것임을 짐작케 해준다.

화면 오른쪽 변을 따라 글 (8)이 2줄로 적혀져 있다. 첫 번째 줄에서부터 두 번째 줄 끝에서 열 번째 문자까지는 화제로 제시된 시구를 적은 것이고, 두 번째 줄의 끝에서 9개 문자들은 호와 그림을 그렸을 때의 나이를 적은 것이다. 작은 도장 2개가 마지막 줄 뒤에 찍혀져 있고, 큰 도장 1개가 굵은 가지 아래, 즉 화면 왼쪽 상단 쪽에 찍혀져 있다.

화면 오른쪽 변을 따라 길게 적혀진 2줄의 글은 <그림 7>에서 화면 왼쪽 변을 따라 길게 적혀진 2줄의 글처럼 화면이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게 하여 시각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기능을 한다. 왼쪽 상단에서부터 시작하여 오른쪽 하단에 이르기까지 꾸불꾸불하게 뻗어나간 매화나무 가지의 형태가 동적인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한 쪽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어 불안정감을 준다. 그런데 화면 오른쪽 변을 따라 길게 늘어진 2줄의 글은 오른쪽 방향으로 기울어 있는 나뭇가지를 떠받쳐 주는 듯한 느낌을 준다. 그리하여 화면이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어 안정되어 보인다.

동일 화제로서 시가 적혀진 위치와 외적인 형태는 그림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그림 7>에서는 화면의 왼쪽 변을 따라 길게 적혀져 있는데 비해, <그림 8>에서는 화면의 오른쪽 변을 따라 길게 적혀져 있다. 이는 그림에 따라 나뭇가지가 뻗은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나뭇가지가 <그림 7>에서는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왼쪽 하단으로 뻗어 있는데 비해, <그림 8>에서는 화면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뻗어 있다. 두 폭의 그림에서 일군의 문자 형상으로서 시는 호와 함께 모두 세로로 길게 늘어진 2줄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런데 줄의 굵기가 그림에 따라 차이가 난다. <그림 8>에 적혀진 문자들의 크기가 <그림 7>의 것보다 조금 더 크기 때문에 문자열의 굵기도 <그림 8>의 것이 <그림 7>의 것보다 조금 더

굵다. 그런데 그림에 따라 나뭇가지의 굵기가 차이난다. <그림 7>의 두 가닥으로 갈라진 나뭇가지보다 <그림 8>의 나뭇가지가 더 굵다. 그러므로 월전이 나뭇가지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 그림에 따라 문자들의 크기를 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그림 7>과 <그림 8>의 동일 화제로 적혀진 시는 문자들의 배열 형태와 배열 위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미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화제로 제시된 시는 원래 <그림 7>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어진 것이다. 화면상에서는 눈 속에서 붉은 꽃이 화사하게 핀 한 그루 매화나무의 모습만이 그려져 있는데 비해, 화제로 제시된 시에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서로 다른 2개의 풍경이 제시된다. 전 1,2구에서는 달빛 아래 펼쳐진 설경을 보고 흥겨워하고 있는 시적 인물의 모습이 제시된다. 환한 달빛 아래 펼쳐진 설경으로 인해 흥이 도도해진 인물이 밤이 깊도록 혼자서 시를 읊조리기도 하고 또 술을 마시기도 한다는 것이다. 후 3,4구에서는 밤 늦게까지 설경을 감상하던 시적 인물이 서재의 창가에 기댄 채 잠들어 있고 한 그루 매화나무가 추운 겨울밤의 정취를 품고 있는 모습이 제시된다. <그림 7>의 화면상의 형상과 관련해 볼 때, 한 그루 매화나무가 추운 겨울밤의 정취를 품고 있다는 것은 곧 매화나무가 눈이 내린 추운 겨울밤에 꽃을 피우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밤 늦게까지 설경을 감상하던 시적 인물도 잠이 든 깊은 겨울밤에 한 그루 매화나무가 꽃을 피우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는 <그림 7>에 그려진 형상의 시간적 배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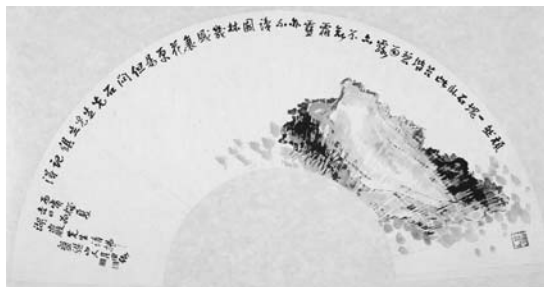
<그림 8>은 붉은 꽃이 막 피어나기 시작한 매화나무 가지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러므로 <그림 8>의 화제로 제시된 시 또한 <그림 8>의 화면상의 형상의 시간적 배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시에서는 설경이 언급되어 있는데 비해, <그림 8>에서는 설경을 찾

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화제로 제시된 시는 <그림 8>에 대해 유효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화제로 제시된 시구는 <그림 7>에 대해서는 정보적 기능과 미적 기능을 모두 수행하지만, <그림 8>에 대해서는 미적 기능만 수행하고 정보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그림 9>는 <돌(1976)>이고, <그림 10>는 <돌(1986)>이다. 글 (9)와 (10)은 각각 <그림 9>와 <그림 10>의 화면상에 적혀진 것이다



<그림 9> 돌 54.7×66cm, 1976



<그림 10> 돌 37×75cm, 1986

(9)

頑然一塊石	완고해 보이는 한 덩어리 돌이
臥此苔塔碧	여기 푸른 이끼 낀 섬돌로 누워 있다
雨露亦不知	비와 이슬도 알지 못하고
霜雪亦不識	눈과 서리도 인식하지 못할 것이니
園林幾盛衰	원림이 몇 번이나 성쇠를 맞았고
花樹幾更易	꽃과 나무가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를
但問石先生	오직 돌 선생께 물어 봐야겠지
先生俱記得	선생은 모두 기억하고 있을 터이니

丙辰立夏節月田散人寫[병진(1976)년 입하절에 월전산인이 그리다]

(10)

頑然一塊石	완고해 보이는 한 덩어리 돌이
臥此苔塔碧	여기 푸른 이끼 낀 섬돌로 누워 있다
雨露亦不知	비와 이슬도 알지 못하고
霜雪亦不識	눈과 서리도 인식하지 못할 것이니
園林幾盛衰	원림이 몇 번이나 성쇠를 맞았고
花樹幾更易	꽃과 나무가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를
但問石先生	오직 돌 선생께 물어 봐야겠지
先生俱記得	선생은 모두 기억하고 있을 터이니

丙寅榴夏吉日爲湖巖先生清拂盤龍散人月田作[병인(1986)년 유하 길일에 호암선생을 위해 먼지를 깨끗하게 털고 반룡산인 월전이 그리다]

<그림 9>와 <그림 10>의 제목은 똑같이 ‘돌’이다. 그러나 화면의 형태가 다를 뿐 아니라 화면상에 그려진 돌의 형상도 크게 차이난다. <그림 9>의 화면은 사각형 모양인데 비해, <그림 10>의 화면은 부채 모양이다. <그림 9>에서는 비스듬하게 서 있는 한 무더기의 돌덩이들이 그려져 있

는데, 앞쪽으로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들이 연이어 있고 절벽 뒤쪽으로는 숲이 우거진 산 모양을 하고 있다. 연한 푸른빛을 띤 돌덩이의 앞면이 깎아지른 듯한 절벽처럼 보이고, 돌덩이 뒤쪽으로 짙은 먹칠을 한 곳은 우거진 숲처럼 보인다. <그림 10>에서는 풀밭 위로 큰 돌덩어리 하나가 그려져 있는데, 오른쪽으로는 평평하고 넓적하며 왼쪽으로는 뾰족하게 솟아 오른 형태로 되어 있다. 돌덩어리 뒤쪽으로는 숲이 그려져 있다.

동일 화제가 적혀져 있는 위치와 외적인 형태도 그림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그림 9>에서는 글 (9)가 화면 왼쪽에 변을 따라 3줄로 적혀져 있다. 화면 왼쪽 상단에서부터 하단에 이르기까지 세로로 길게 적혀진 앞의 2줄은 화제로 제시된 시를 적은 것이고, 짧은 마지막 줄은 그림을 그린 시기와 호를 적은 것이다. <그림 10>에서는 글 (10)이 2개의 모양으로 적혀져 있다. 부채의 윗면을 따라 1줄로 등그렇게 적혀진 것과 세로로 짧게 4줄로 적혀진 것이 바로 그것이다. 전자는 화제로 제시된 시를 적은 것이고, 후자는 그림을 그린 시기와 그림을 증명하는 사람 그리고 호를 적은 것이다.

<그림 9>에 그려진 한 무더기의 돌덩이들의 형상은 화면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비스듬하게 기울여져 있다. 사선 모양으로 기울어진 형태가 동적인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한 쪽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어 불안정감을 준다. 그런데 글 (9)가 왼쪽 변을 따라 3줄로 길게 적혀져 있기 때문에 왼쪽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기울어 있는 한 무더기의 돌덩이들을 떠받쳐 주는 듯한 느낌을 준다. 그리하여 화면이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어 안정되어 보인다. 즉 일군의 문자 형상으로서 글 (9)는 한쪽 방향으로 기울어진 돌덩이들의 형상을 떠받쳐줌으로써 화면이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게 하여 시각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기능을 한다.

이에 비해 <그림 10>에서 일군의 문자 형상으로서 글 (10)은 큰 돌덩

어리의 위쪽과 왼쪽을 마치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다. 그림으로써 큰 돌덩어리의 모습이 두드러져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글 (10)은 큰 돌덩어리의 모습을 부각하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그림 9>와 <그림 10>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그림들에서와는 달리 동일 화제가 적혀진 위치와 외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일군의 문자 형상으로서 화면상에서 하는 기능도 서로 다르다. 이는 둘의 형상뿐만 아니라 화면의 형태가 크게 차이 나는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화제로 제시된 시는 원래 <그림 9>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어진 것이다. 화면상에는 산 모양을 하고 있는 한 무더기의 돌덩이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반면, 화제로 제시된 시에서는 한 덩어리의 돌의 모습이 제시된다. 제 1연에서는 원래 있던 자리에 계속 그대로 있던 돌이 사람들이 오랜 세월을 걸쳐 밟고 다니는 바람에 이제는 푸른 이끼 낀 섬돌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제 2연에서는 비와 이슬, 눈과 서리의 존재가 언급되는데, 그것들은 모두 무언가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 무언가는 제 3연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는데, 그것은 바로 원림의 성쇠의 역사이다. 비와 이슬, 눈과 서리는 원림에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절에 따라 잠시 머물렀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원림이 몇 번이나 성쇠를 맞았고 원림에 있는 꽃과 나무가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제 4연에서는 원림의 성쇠의 역사를 아는 존재가 바로 푸른 이끼 낀 섬돌이 된 돌이라는 것이다. 그 돌은 원림이 조성된 이래로 계속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왔기 때문에 원림의 성쇠의 역사를 모두 기억하고 있다. 그리하여 시적 화자는 그러한 돌을 존중하는 뜻으로 돌에 대해 '선생'이라는 칭호를 붙이고 있다. 즉 시적 화자는 '부동성' 또는 '불변성'을 돌의 덕목으로 여겨 그것을 예찬하고 있는 것이다.<sup>14)</sup>

14) 김바라세이고 저, 민병산 역, 『동양의 마음과 그림』, 새문사, 1978, 113~114쪽 참조

시에서 돌의 덕목으로서 예찬되는 ‘불변성’ 또는 ‘부동성’은 <그림 9>의 화면상에 그려진 돌들의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한 무더기의 돌덩이들이 산의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 또한 그 자리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불변성’ 또는 ‘부동성’을 그것의 징표로 갖는다. 즉 화제로 제시된 시는 <그림 9>가 산 모양을 한 돌덩이들을 통해 돌의 덕목을 형상화한 그림임을 짐작케 해준다. 이러한 점에서 화제로 제시된 시는 일종의 문자 메시지로써 <그림 9>에 대한 정보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0>의 화면상에 그려져 있는 형상은 화제로 제시된 시의 내용과 비슷하다. 풀밭 위에 누워 있는 돌의 모습, 즉 형태가 평평하고 넓적한 데다 표면이 군데군데에 연두 빛을 띤 모습은 시에서 언급된 ‘푸른 이끼 낀 섬돌’의 모습과 비슷하다. 또 큰 돌덩어리 뒤로 보이는 숲은 시에서 언급된 원림으로 보인다. 숲보다 돌덩어리를 훨씬 더 크고 또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그린 것은 돌덩어리를 두드러져 보이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시적 화자에 의해 존중받는 존재로서 돌의 위엄을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볼 때 <그림 10>은 화제로 제시된 시의 내용을 그린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는 <그림 10>의 대상이자 그림에 대한 정보의 출처가 된다. 이러한 점에서 화제로 제시된 시는 일종의 문자 메시지로써 <그림 10>에 대한 정보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그림 11>은 <춤추는 유인원(1988, 봄)>이고, <그림 12>는 <춤추는 유인원(1988, 가을)>이다. 글 (11)과 (12)는 각각 <그림 11>과 <그림 12>의 화면상에 적혀진 것이다



〈그림 11〉 춤추는 유인원  
175×138cm, 1988 봄



〈그림 12〉 춤추는 유인원  
176×140cm, 1988 가을

(11)

춤추는類人猿[춤추는 유인원]

偶以秃毫寫猿猴	우연히 몽당붓으로 원숭이를 그려보니
形貌行態稍類人	모습과 행태가 자못 사람과 닮았다
却憶陀翁進化說	다윈의 진화설을 생각해보면
疑是重見原始人	원시인을 다시 보는 것 같지만
看他怪奇狡獪相	저 괴상하고 교활한 모습을 보면
還似今日無賴人	마치 요즈음의 무뢰한과 같다
請君莫笑漫畫圖	그대여 만화라고 비웃지 마소
只自誦諷類猿人	그저 원숭이 닮은 사람을 풍자했을 뿐이오

一九八八年歲戊辰春盤龍山人月田并錄新句[1988년 무진 봄에 반룡산인 월전이 새로 지은 시를 아울러 적는다]

(12)

춤추는類人猿戊辰秋日盤龍山人月田作[춤추는 유인원 무진(1988)년 가

을날 반룡산인 월전이 그리다]

偶以禿毫寫猿猴	우연히 몽당붓으로 원숭이를 그려보니
形貌行態稍類人	모습과 행태가 자못 사람과 닮았다
却憶陀翁進化說	다윈의 진화설을 생각해보면
疑是重見原始人	원시인을 다시 보는 것 같지만
看他怪奇狡獪相	저 괴상하고 교활한 모습을 보면
還似今日無賴人	마치 요즈음의 무뢰한과 같다
請君莫笑漫畫圖	그대여 만화라고 비웃지 마소
只自誦諷類猿人	그저 원숭이 닮은 사람을 풍자했을 뿐이오
老月戲題[노월이 농 삼아 적다]	

<그림 11>과 <그림 12>의 제목은 똑같이 ‘춤추는 유인원’이지만, 화면상에 그려진 춤을 추는 원숭이의 형상은 조금 차이 난다. <그림 11>에서는 원숭이가 오른팔은 손바닥을 편 채 위쪽을 향해 쭉 뻗고, 왼팔은 팔꿈치를 굽혀 가슴 쪽을 향하게 하며, 두 다리는 앞으로 약간 굽히고, 머리와 상체는 왼쪽으로 약간 기울이면서 얼굴은 미소를 띤 채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비해 <그림 12>에서는 오른팔을 위로 올린 채 두 손가락으로 V자를 표시하고, 왼 팔은 몸 쪽으로 붙인 채 아래쪽을 향하게 하며, 두 다리는 벌려서 기마 자세를 하고, 입으로는 소리를 지르면서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다.

동일 화제가 적혀져 있는 위치와 외적인 형태는 그림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 난다. <그림 11>에서는 글 (11)이 화면 오른쪽 변을 따라 3줄로 적혀져 있다. 첫째 줄은 그림의 제목을 적은 것이다.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부터 하단에 이르기까지 세로로 길게 적혀진 2줄은 화제로 제시된 시와 그림을 그린 시기 그리고 호를 적은 것이다. <그림 12>에서는 글 (12)가 두 군데로 나누어져 적혀 있다. 화면 오른쪽 상단의 짧은 3줄로 된 글은

그림의 제목과 그림이 그려진 시기 그리고 호를 적은 것이다. 화면 왼쪽 하단의 6줄로 된 글은 화제로 제시된 시와 호를 적은 것인데, 앞의 5줄은 시를 적은 것이고, 마지막 줄은 호를 적은 것이다.

또한 일군의 문자 형상으로서 글 (11)과 (12)가 각각 화면상에서 하는 기능도 서로 다르다. <그림 11>에서는 원숭이의 머리와 상체가 화면의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기울어 있다. 한 쪽으로 기울어진 형태가 한 편으로 동적인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 불안정감을 준다. 그런데 화면의 오른쪽 변을 따라 상단에서부터 하단에 이르기까지 길게 적혀진 2줄의 글은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기울어 있는 원숭이의 머리와 상체를 떠받쳐 주는 듯한 느낌을 준다. 그리하여 화면이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어 안정되어 보인다. 즉 일군의 문자 형상으로서 글 (11)은 한쪽 방향으로 기울어진 원숭이의 형상을 떠받쳐줌으로써 화면이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게 하여 시각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기능을 한다.

이에 비해 <그림 12>에서 일군의 문자 형상으로서 글 (12)는 화면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화면이 균형을 이루게 하여 시각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기능을 한다. <그림 12>에서 원숭이의 몸체는 화면 중앙에 그려져 있지만, 원숭이의 오른팔은 화면 상단 왼쪽 모서리까지 길게 뻗어 있는 형태로 그려져 있다. 만약 화면 하단 왼쪽과 오른쪽 모서리와 상단 오른쪽 모서리가 모두 여백의 상태로 비어 있으면, 화면이 상단 왼쪽으로 치우쳐서 불안해 보인다. 그래서 월전은 화면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글 (12)를 나누어 화면 상단 오른쪽 모서리에는 길이가 짧고 들쭉날쭉한 형태로 된 3줄의 글을 적어 넣었고, 화면 하단 왼쪽 모서리에는 상대적으로 길이가 길고 비교적 가지런한 형태로 된 6줄의 글을 적어 넣었다. 그리고 화면 하단 오른쪽 모서리에는 작은 도장을 찍었다. 그림으로써 화면 왼쪽 상단 모서리의 두 손가락으로 V자 표시를 하

고 있는 원숭이의 오른손은 화면 오른쪽 하단 모서리의 작고 네모난 도장과 대응을 이루고, 왼쪽 하단 모서리의 길고 비교적 가지런한 형태로 된 6줄의 글은 화면 오른쪽 상단 모서리의 짧고 들쭉날쭉한 형태로 된 3줄의 글과 대응을 이룬다. 즉 화면이 비대칭적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월전은 <그림 11>과 <그림 12>에 동일 화제를 적어 넣되, 화면상의 형상을 고려하여 화제의 위치와 외적인 형태를 그림에 따라 다르게 하였다. 그림으로써 일군의 문자 형상으로서 화제가 화면상에서 하는 기능도 그림에 따라 달라진다.

다음은 동일 화제로 제시된 시가 <그림 11>과 <그림 12>에 대해 각각 유효한 정보를 제시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시의 제 1연에서는 월전이 우연히 춤추는 원숭이의 모습을 그려보았는데, 그 모습과 행태가 사람과 닮았음을 말하고 있다. 그리하여 제 2연에서는 원숭이와 사람의 모습이 닮았기 때문에, 다윈의 진화설에서 주장하듯이 원숭이의 모습에서 인류의 시조인 원시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월전은 제 3연에서 퇴화설이라는 색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원숭이의 괴상하고 교활한 모습에서 요즈음의 무리한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인성이 타락하여 사람이 원숭이와 같은 동물로 퇴화되어 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제 4연에서 월전은 자신이 그러한 그림을 그린 의도에 대해 말하고 있다. 춤추는 원숭이의 모습이 만화처럼 보이지만 원숭이와 닮은 사람을 풍자하기 위해 그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월전의 그림은 요즈음의 교활한 무리배들이 원숭이로 퇴화된 모습을 그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15)</sup>

시에서는 춤추는 원숭이의 모습을 그린 그림을 통해 요즈음의 교활한

15) 이종호, 『월전 한시의 빛과 울림』, 김수천외, 『월전 장우성 시서화 연구』, 열화당, 2012, 100~101쪽 참조

무뢰배들을 풍자하고자 한 월전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림 11>과 <그림 12>는 모두 춤을 추는 원숭이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므로, 시는 두 그림 모두에 유효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점에서 화제로 제시된 시는 일군의 문자 메시지로서 두 그림 모두에 대해 정보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 3. 결론

월전 장우성은 화제의 미적 기능을 다각적으로 실험하기 위해 40년 동안 22회에 걸쳐 18종의 동일 화제들을 자신의 그림들에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다. 동일 화제가 적혀진 그림들은 모두 40폭이나 된다. 이 글은 바로 월전이 화제의 미적 기능을 다각적으로 실험하기 위해 동일 화제들을 그림에 따라 어떻게 달리 사용하였는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18종의 동일 화제가 각각 적혀진 2폭 또는 3폭의 그림들을 비교하여 월전이 두 번째 그림 또는 세 번째 그림에 동일한 화제를 적어 넣을 때 첫 번째 그림에서와는 다르게 하였던 방식들을 추출하여 그것들을 유형화하였다. 동일 화제의 상이한 사용 방식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동일 화제를 이루고 있는 문자들의 배열 형태만 다르게 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유형은 문자들의 배열 형태뿐만 아니라 배열 위치도 다르게 하는 방식이다.

동일 화제를 이루고 있는 문자들의 배열 형태만 다르게 하였을 경우에는 일군의 문자 형상으로서 화제가 하는 기능이 그림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이에 비해 동일 화제를 이루고 있는 문자들의 배열 형태와 배열 위치를 모두 다르게 하였을 경우에는 일군의 문자 형상으로서 화제가 하는

기능이 그림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또 달라지지 않기도 한다. 그러므로 두 번째 유형은 화제의 기능이 달라지느냐의 유무에 따라 다시 세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동일 화제를 이루고 있는 문자들의 배열 형태는 다르지만 배열 위치가 비슷한 그림들은 모두 7종이 있다. <서록도병풍(1967)>과 <서록도(1973)>, <백자(1969)>와 <백자(1979)>, <산(1973)>과 <산(1994)>, <수선(1979)>과 <수선(1990)> 그리고 <수선(연도 미상)>, <창포화(1980)>와 <창포화(1981)>, <산과 달(1994)>과 <산(1995)>, <명추(1998)>와 <명추(연도 미상)> 등이 바로 그것이다.

동일 화제를 이루고 있는 문자들의 배열 형태와 배열 위치는 다르지만 화제의 기능이 동일한 그림들은 모두 6종이 있다. <야매(1975)>와 <야매(1979)> 그리고 <야매(1988)>, <등꽃(1978)>과 <등(1981)>, <설매(1980)>와 <홍매(1982)>, <백매(1980)>와 <야매(1996)>, <학(1981)>과 <학(1982)>, <군와쟁쟁도(연도 미상)>와 <올챙이들의 행진(1999)> 등이 바로 그것이다.

동일 화제를 이루고 있는 문자들의 배열 형태와 배열 위치뿐만 아니라 화제의 기능도 다른 그림들은 모두 5종이 있다. <석국(1959, 곡우)>과 <국화(1959, 소서)>, <면벽(1973)>과 <면벽(1981)> 그리고 <면벽(1988)>, <돌(1976)>과 <돌(1986)>, <새안(1983)>과 <가을밤(1994)> 그리고 <가을밤 기러기 소리(1999)>, <춤추는 유인원(1988, 춘)>과 <춤추는 유인원(1988, 추)>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 글에서는 각 유형에 따라 동일 화제가 사용된 그림들을 비교 분석하여 동일 화제를 이루는 문자들의 배열 형태와 배열 위치가 그림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며, 또 일군의 문자 형상으로서 화제가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림들의 비교 분석을 통해 월전이 화

제의 미적 기능을 다각적으로 실험하기 위해 먼저 동일 화제가 사용된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그림의 주요 형상의 형태를 첫 번째 그림의 것과 차이 나게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월전의 그림들에서 일군의 문자 형상으로서 화제는 주요 형상만으로 화면을 형성하기에는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는 기능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에 따라 주요 형상의 형태가 차이 나면 비록 동일 화제일지라도 그것의 외적 형태나 위치도 자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화제의 기능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동일 화제의 반복적인 사용을 통한 월전의 실험은 곧 주어진 그림의 주요 형상의 형태에 따라 그 형상의 형태를 보완하여 화면을 형성할 수 있도록 화제에 적합한 외적 형태와 위치를 부여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월전의 그림들에서 화제는 단순히 화면상의 빈 공간에 적혀진 것이 아니라 일군의 문자 형상으로서 월전에 의해 정교하게 고안된 일종의 미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또한 일종의 문자 메시지로서 화제가 제시하는 정보가 두 폭의 그림 모두에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 비교 분석 하였던 6종의 동일 화제가 적혀진 12폭의 그림들 중에서 4종의 동일 화제는 두 폭의 그림 모두에 적합한 정보를 제시하는 데 비해, 2종의 동일 화제는 한 폭의 그림에 적합한 정보만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볼 때, 월전이 화제의 미적 기능을 다각적으로 실험하는 과정에서 화제의 정보적 기능은 다소 소홀히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김바라세이오 저, 민병산 역, 『동양의 마음과 그림』, 새문사, 1978, 1~369쪽.
- 왕백민 지음, 강관식 옮김, 『동양화구도론』, 미진사, 1991, 1~250쪽.
- 강경숙, 『한국도자사』, 예경, 2012, 1~652쪽.
- 김동영외, 『음악미술 개념사전』, 아울북, 2010, 1~288쪽.
- 김상철, 「전통의 뜰에 서서 현대의 문을 열다 - 부견부와 장우성의 삶과 예술」, 『당대수묵대가: 장우성·푸취안푸』, 이천시립월전미술관, 2010, 166~170쪽.
- 김원룡, 「월전과 그 예술」, 『월전 장우성』 지식산업사, 1981(이열모외의 공저, 『월전을 그리다』, 미술문화, 2012, 재수록), 253~256쪽.
-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문화재대관 - 국보 도자기 및 기타』, 2011, 1~456쪽.
- 박영택, 「장우성 - 자기 내면의 투사로서의 서화」, 『당대수묵대가 장우성·푸취안푸』, 이천시립월전미술관, 2010, 144~151쪽.
- 방병선, 『사람을 닮은 그릇, 도자기』, 보림출판사, 2006, 1~92쪽.
- 신항섭, 「월전 장우성의 작품 세계」, 『한벽문충』 10호, 월전미술문화재단, 2001(이열모외의 공저, 『월전을 그리다』, 미술문화, 2012, 재수록), 331~338쪽.
- 오광수, 「문인화의 격조와 현대적 변주」, 『한국근대화화선집』 한국화 11권, 금성출판사, 1990(이열모외의 공저, 『월전을 그리다』, 미술문화, 2012, 재수록), 281~292쪽.
- 이열모, 「월전 예술의 정신세계」, 『한벽문충』 10호, 월전미술문화재단, 2001(이열모외의 공저, 『월전을 그리다』, 미술문화, 2012, 재수록), 298~313.
- 이종호, 「월전 한시의 빛과 울림」, 김수천외, 『월전 장우성 시서화 연구』, 열화당, 2012, 59~110쪽.
- 장우성, 『화실수상』, 예서원, 1999, 1~275쪽.
- 정현숙, 「절제와 일취의 월전 서풍」, 김수천외의 공저, 『월전 장우성 시서화 연구』, 열화당, 2012, 113~158쪽.
- 최경환, 「월전 장우성의 그림과 제화시의 기능」, 『한국고전연구』 제26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2, 12, 425~468쪽.
- \_\_\_\_\_, 「월전 장우성의 그림과 화제의 미적 기능(1) - 화면의 주요 형상을 부각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동양한문학연구』 제38집, 동양한문학회, 2014, 2, 247~277쪽.

ABSTRACT

Chang Woo-sung's Paintings and the Experiment on Aesthetic Function  
by Repeatedly Using the Same Chinese Poems and Chinese Prose Writings

Choi, Kyung-hwan

In this paper it is studied how Chang Woo-sung has differently used the same Chinese poems and prose writings on his paintings, to make a series of experiments on their aesthetic function, such as function of letter-characters' shapes. The methods used by Chang Woo-sung are as follows: (1) The method of varying the form in which shapes of letter-characters are arranged. (2) The method of varying both the form and the position in which shapes of letter-characters are arranged. The latter method is again divided into two types according to whether the aesthetic function of letter-characters' shapes is the same or different.

**Key Words** Chang Woo-sung, Chinese poems and Chinese prose writings written on paintings, Function of letter-characters' shapes

논문투고일 : 2014. 9. 30

심사완료일 : 2014. 11. 21

게재확정일 : 2014. 12. 3

